

지역 매아리

정읍시, 단풍아카데미 개최

정읍시가 오는 20일 양자 역학의 전문과학자인 김상욱 교수를 초청해 정읍 연자아트홀 공연장에서 제7회 정읍 단풍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달림과 올림의 저자이자 최근 방영된 tvN 일일신잡 3에 출연했던 김상욱 교수는 물리학을 품은 인문학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김 교수는 우주와 인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강에서는 '인간은 올림이다.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달림이 올림으로 반응한다. 나의 올림이 또 다른 달림이 되어 새로운 올림으로 보답받기를 바란다' 등 물리학자만의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 단풍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복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강은 11월까지 매월 무료로 실시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선은리 새만금아파트 진입로 확장 통행불편 해소

부안군은 부안을 선은리에 위치한 새만금아파트 진입로 450m를 사업비 5억을 투자해 차로확장, 인도개설, 우수관로설치, 가로화단조성 등을 완료하고 이달 중으로 개설해 아파트주거민 및 통학생들에게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도로 B=25m)로서 현재 왕복2차선으로만 형성되어 있어 2012년 12월 새만금아파트 입주(300여세대)입주에 따른 교통량증가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주민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7기 주민생활밀착형SOC사업을 균형 역점사업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면서 새만금아파트 주민들 및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시내권과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통행차량들에 대한 운행 불편을 해소 되게 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안전보행환경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안전한교통환경 조성사업에 행정역량을 기울여 부안군민의 교통행복지수를 UP시키고, 여름철 관광성수기 및 2023캠버리대회개최 관련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기업하기 좋은 정읍 '총력'

유진섭 시장, 고리 생산 공장 방문... 소통행정 강화해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 실현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21일 하북동 2 산업단지 내 (주)고리(대표 김기환) 생산 공장을 방문해 기업체 현황을 둘러보고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 시장의 기업체 현장방문은 민선 7기 핵심 시정 방침인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하다.

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감사드린다"며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고리는 상수관과 하수관을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는 회사로,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전문연구 요원들의 부단한 기술 개발의 결과로 수도용 배관소재인 HI-3P(3중벽 구조) 내충격 수도관과 HI-3R(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HI-GP(내충격 수도관용 터타일 이음관)을 개발했다.



유진섭 시장이 지난 21일 하북동 2산업단지 내 (주)고리 생산 공장을 방문해 기업체 현황을 둘러보고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제품은 외부충격에 강하며 인체에 무해하고 무엇보다도 수돗물의 적수와 백수현상을 해결한 위생적인 수도관이다. 경제성도 뛰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NT마크, KT마크, 국산신기술 제품 등 기술인증은 물론, 산업포장 기술혁신대상 등 각종 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일본과 영국, 중국 등에 특허로 등록돼 세계적으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고리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관 내벽 면부에 생성되는 유해박테리아와 Scale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항균 수도관 개발에 성공했다. 김기환 대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과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회사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이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20개 사회단체와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매너가 도시경쟁력! 매력 부안!'

부안군, 문화군민운동 업무협약

부안군은 지난 21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와 부안군이장협의회, 부안군자율방범연합회 등 관내 20개 사회단체와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은 '친절'의 마음으로 화합하며 '질서'의 문화로 신뢰를 조성하고 '청결'의 의지로 품격을 높여 2023년 부안 세

계쟁버리 성공 개척을 지원하고 부안에 가고 싶게, 살고 싶게 만들고자 하는 '매력도시-부안'을 지향하는 범군민의식개혁이자 지역사랑운동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현재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이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 홍보행사 공동 추진 등 단계간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각 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군민협의체를 구성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이 비록 세계잼버리 손님맞이를 위해 출발하지만 미래 부안의 품격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운동이 성공하려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주민의식을 가진 사회단체의 역동성과 자발성이 큰 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2023년 부안 세계잼버리를 맞아 부안이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매너(군민의식)'가 도시경쟁력! 매력 부안'을 기치로 대대적인 문화군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쌔고을서 즐기는 쌔나는 기차여행'

기차타고 힐링하는정읍농촌체험여행 첫 출발

쌔고을 정읍(伊屯)의 아름다운 자연과 농촌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 농뚜레일 '쌔고을 정읍, 쌔나는 여행'이 지난 22일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정읍행 열차를 타고 온 50명의 관광객들은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둘레길을 둘러봤다. 이어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의 태산선비문화관에서 옛 선인들의 선비정신을 배우고 전통 떡매치기 체험과 양반들만 했다는 '쌔육놀이' 등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또 정읍 9경 중 8경으로 지정된 쌍화차거리를 둘러보고 조선시대

특산품으로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옹동 숙지황을 주재료로 구절초를 가미해 깊은 맛을 낸 쌍화차를 시음했다.

이 외에도 나만의 향주머니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해 맛과 멋이 깃든 정읍만의 향기를 만끽했다.

'쌔고을 정읍, 쌔나는 여행'은 올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공동 출시한 '농뚜레일'이라는 기차여행 상품이다. '농뚜레일'은 철도와 농촌의 협력인 두레를 합성한 신조어다. 상품 신청은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와 코레일톡의 '농뚜레일' 농촌체험 연계 상품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발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 '톡톡'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 개최

부안군은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 및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민·관 공동으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9년 제2차 새만금지원협의회(위원장 이영택)가 지난 21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사업 관련 현황 설명에 이어 새만금 사업현장 비산먼지 발생과 새만금 해수유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장 대응,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 건의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현장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시위를 갖는 등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피해 감소방안 마련 관련기관 건의 등 해법을 모색했으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장과 관련해 대규모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만금 관할권 사수 의지 선

포 등을 논의했다. 또 새만금 내부철도성 기본조사 용역비 예산보충 노력과 함께 새만금 철도연장 당위성 홍보활동을 지속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현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올라선 지 3년째인 올해의 새만금은 본격적인 사업 가속화의 원년으로 기억될 만한 뜻깊은 순간들이 많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 부안발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는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 및 당면 현안사항 논의 등을 위해 구성했으며 분기마다 새만금 현장 방문 및 토론회를 개최해 새만금 사업을 알리고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두 팔 걷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만료 기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창군이 다음달까지 인허가 접수 완료 목표로 총력을 펼치고 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무허가 축사였던 273개 농가 중 128개(46.9%) 농가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 나머지 128개 농가도 설계·측량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7월까지 인허가 접수 완료 목표로 농가별로 읍면직원 및 축협 직원들이 일대일 독려를 통해 온 힘

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군은 관광 자세를 보이고 있는 17개 농가의 설득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관내 8개 건축사무소 건축사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신속설계 등 인허가 설계를 당부했다.

고창부안축협에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축사의 측량 설계비 등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농번기를 위한 축협직원 30명이 현장에 나가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